

## 고교학점제란?

고교학점제는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 누적해서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과목을 선택한다는 점, 학생이 졸업학점이 졸업 요건이 된다는 점입니다. 뒤에 좀 더 자세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고교학점제 고등학교 현장에 가져온 변화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다섯 가지 정도로 요약될 것 같습니다.

## 고교학점제에서 변하는 점

우선 기존에는 학교 수업일수의 2분의 이상 출석하면 졸업이 가능했지만 고교학점제는 3년간 192점 이상의 학점도 함께 취득해야 졸업이 가능해집니다.

두 번째로 과거에는 수업이 종료되면 과목 이수가 인정됐지만 고교학점제는 과목 수업 횟수의 3분의 2이상을 출석해야 하고 평가 결과인 학업 성 치유도 40% 이상을 만족해야 됩니다. 관련해서 조금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고등학교는 50분 수업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50분 수업이 16회 진행이 되면 1학점 수업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3학점 수업이라고 할 때 총 48회의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이때 학생은 48회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32회 이상의 출석을 해야 과목 이수를 위한 출석 기준을 충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존에는 학교가 전해 준 시간표에 따라서 모든 학생이 같은 내용을 공부했다면 고교학점제는 학생별로 다양한 과목을 선택해서 공부하기 때문에 개인별 시간표가 만들어집니다. 이외에도 고교학점제와 함께 2028 대입제도 개편에 따라서 평가 방식의 변화가 생겼고 고교학점제에 따라서 학습의 장이 지역 사회로 확장되는 학습공간의 변화도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교 학점제가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자신에게 필요한 과목을 직접 선택해서 공부합니다. 이를 위해서 학교는 학생별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과목들을 편성해 두고 있는데요. 입학한 신입생의 3년간 교육과정 편성을 미리 수립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과목을 직접 선택한다는 것이 학생에 따라 쉬울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목 선택에 대한 어떤 확신이 부족하다면 과목 선택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는 학생들이 과목 선택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진로 설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진로진학 상담 선생님과 각 교과별 선생님들로 이루어진 교육과정 이수지도 팀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학생의 진로진학 상담뿐만 아니라 과목에 대한 안내와 함께 공부 방법에 대해서도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은 진로 학업 설계 지도를 통해서 자신에게 맞는 과목을 선택해서 수업을 듣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과목 이수 여부가 결정이 되고 이수한 과목에 대해서는 학점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적된 학점이 3년간 192 학점 이상이 되면 졸업하게 됩니다.

## 공통과목

고등학교에 갓 입학한 올해 1학년 학생들은 곧바로 과목을 선택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1학년 시기에는 공통 과목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이수하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기초 소양이나 기본 한력 함량을 위한 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된 과목이 공통 과목들이고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공통 국어 공통수학 공통영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 선택과목 및 과목 선택 안내

그래서 학생이 2학년이 되면 비로소 과목을 직접 선택해서 듣게 되는데요. 그래서 1학년 시기에는 공통과목 이수와 함께 학생들이 과목 선택을 잘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학교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3, 4월 경에는 학생들이 고교학점제를 이해하고 나의 진로와 관심 분야 등을 탐색하는 시기가 됩니다. 이 시기에는 고교학점제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한 안내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진로 적성 검사와 진로 학업 상담도 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5, 6월 달 정도에는 학생들이 과목을 탐색하고 과목 이수를 설계합니다. 그래서 2학년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수하게 될 다양한 선택 과목들에 대한 안내와 함께 선택 과목에 대한 가수요 조사 성격의 1차 희망 조사도 실시됩니다.

이렇게 1학기 말에 해당되는 7, 8월 달이 되면 과목 이수 설계를 구체화하는 시기가 되는데요. 다양한 과목 안내가 계속 이루어지고 선택 과목에 대한 2차 희망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시기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선택 과목을 구체화해서 확정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2학기 한 11월 정도가 되면 학생들은 선택 과목들을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선택과목 결정을 위한 이런 과정들은 1학년뿐만 아니라 2학년 시기에도 3학년 선택과목 결정을 위한 어떤 동일한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학교는 학생들이 과목 선택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과목 선택에 대해서 안내하고 지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학생들이 시간표를 스스로 짜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께서 걱정하셨을 텐데요. 시간표를 짜는 것이 아니라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떤 과목이 특정 시간에만 개설되어서 학생이 과목을 선택해야 하는 마치 대학교처럼 시간표를 짜는 것이 아닙니다. 고등학교의 시간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7시간씩 편성되어 있고 시간표 상의 과목 배치는 학생들의 과목 선택 수요에 따라서 학교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학생은 자신의 진로 희망에 따라 좋아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학교가 마련해 놓은 시간표 중 해당하는 선택 과목을 선택하여 찾아듣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교 학점제는 진로 학업 설계가 중요합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배우게 되는 과목은 앞서 고교학점제 개우 설명해 들으셨다시피 대부분 공통 과목 중심으로 구성이 되며 국어 그리고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 탐구 실험 등이 포함이 됩니다. 이 과목들은 2, 3학년에서 선택할 과목의 학습에 필요한 그런 기본적인 학습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학년에 편성된 과목들을 충실히 이수하면서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과목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바로 진로 학업 설계에 꼭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 수강과목 결정 및 진로 탐색에 대한 도움

진학할 학과나 진로 계열에 따라서 어떤 과목을 수강해 할지 궁금하다면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함께 학교 누리집에 이 플래너를 활용하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함께 학교 누리집에 이 플래너를 활용하면 우리 학교에 자 3개년간 과목 편성표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것을 토대로 시간표를 구성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학생 스스로 진로 탐색 또 설계할 수 있도록 직업학과 진로 검사 등에 진로 검사 등에 대한 정보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검색 엔진의 검색창에 함께 학교를 입력하시거나 인터넷 주소창에 [www.togetherschool.go.kr](http://www.togetherschool.go.kr) 입력하시면 함께 학교 누리집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스터디 카페를 클릭하시고 그리고 함께 어이 플래너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또 컨설팅을 신청하시면 자 현지 고등학교 교사 400여명으로 구성된 진로 학업 설계 지원단이 진로진학 과목 선택 및 교육 과정 설계 교과지도 학습 코칭 등 자세하고 친절한 상담을 제공해 드립니다.

함께 학교 누리집에 접속해서 아까 보여 드린 것처럼이 플래너로 들어가시면 여기에 컨설팅 있죠 컨설팅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컨설팅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진로 학업 설계 지원단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이 말고 이외에도 원래 학교에 선생님들 계시죠 선생님들께도 충분한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1학년 때 진로와 적성을 탐색하면서 그리고 고민하면서 앞으로 이수할 과목을 설계하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1학기 중간고사 이후인 5월을 전후 2학년에서 이수할 과목의 주요 조사가 시작이 됩니다. 1학년 내내 진행이 되는 거고요. 이 기간 동안 학생들은 충분히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앞으로 이수할 과목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학년 때에는 3학년에서 이수할 과목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예시를 보시면 뭐 수강신청 변경 기간도 보이죠 하지만 이것은 학교마다 차이가 있고 기간이나 그리고 기준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 2, 3학년 교육과정

1학년에서 공통 과목 중심으로 구성된 과목을 이수한 이후에 2, 3학년에 어떤 과목이 편성되는 살펴보겠습니다. 각 학교는 학교의 전통과 추구하는 인재상 그리고 학교의 교원과 시설 현황 등을 고려해서 교육 과정을 편성하기 때문에 학교마다 교육과정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 학교에 2025학년도 입학생 다시 말하면 올해 1학년 학생들의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교육과정을 이 편성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학년은 모두 학교 지정 과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학년 그리고 3학년에는 학생 선택 과목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2학교 1학년 교육 과정에 이렇게 공통 국어 공통 수학 공통 영어 그리고 사회, 한국사, 사회, 과학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공통 국어가 1학기 4 2학기 4 뭐 공통 수학이 1학기 4 2학기 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주일에 뭐 4시간 수업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4학점이 되는 거죠. 학점은 주당 1시간 수업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외에 이제 체육 과학탐구실험도 있었네요. 체육 그리고 음악 미술 그리고 정보와 한문도 있는데요. 여기 음악 미술 정보 한문에 보면 학기 교차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일학년 학생 전체 중에서 1부 학생은 1학기의 음악을 듣고 2학기의 미술을 수강하게 되며 또 나머지 말은 1학기에 미술 수강하고 2학기 음악을 수강하게 되어 결국 모든 학생이 1학년 때 음악과 미술 이수하는 것이라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2학년 과목 한번 보실까요. 선택과목 편성된 2학년에 어떤 과목들이 편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2학년 1학기에 보시면 문학 대수 미적분 원 영어원 세계 시민과 지리 동아시아 역사기행 사회와 문화 경제 국제관계의 이해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렇게 13 과목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3이 여덟 개가 있죠. 이 얘기는 바로 3학점 여덟 과목을 선택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이렇게 24하 괄호 택 8 이렇게 보여 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아 세과목을 여덟 과목 이수하는 거니까 24점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선택 과목이 여덟 개나 된다고 너무 많다고 걱정하실 수 있는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학교 선생님들께 안내를 받으시면 대학 수학능력 시험 출제 범위 과목이나 아니면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과목들을 고려해서 과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학년 1학기 선택권 B 보시면 일본어 중국어 인공지능 기초 이렇게 세 개 과목이 편성되어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3이라고 써 있네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네 바로 한 과목 선택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3하고 택 1 이렇게 보여주는 편성표도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 이제 3학년에서 어떤 과목을 수강하고 설계할지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2학년 때가 되어서 직접 학생이 선택해서 과목을 듣게 되는 거네요. 5, 6월에는 수요 조사를 하고 그리고 9, 10월경에는 1차로 수강 시청을 하게 되고 11월쯤에 그 수강 확인을 하게 된다고 하니까요.

## 학점 이수 기준

고교 학점제가 도입되면서 이러한 큰 변화 중 하나는 과거처럼 학생들이 단순히 학교에 출석하는 것만으로는 학점을 이수할 수도 없고 졸업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출석만 아니라 최소한의 학업 성취를 갖추어야 학점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전과 다르게 학점 이수 기준을 도입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든 학생에 대한 최소한의 성취 수준을 보장하는 책임 교육을 통해 평등한 출발선을 보장하는 학교 교육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기존에는 출석 일수 기준만 충족하면 졸업이 가능해서 일부 학생들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갖추지 못하고 졸업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학습 결손 누적 예방에 대한 국가와 교육청 학교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과목별 최소한의 성취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책임 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학점 이수 기준을 도입하였습니다.

그러면 과목별로 학점을 이수하려면 과연 얼마나 출석해야 하고 학업 성취율 어느 정도 이상되어야 할까요? 출석은 과목 수업 횟수에 3분의 2이상을 출석해야 하고 학업 성취율 40% 이상을 얻어야 합니다. 이때 40% 성취율 의미가 궁금하시죠 절대평가로 성취도는 a b c d e 5단계가 있는데 그중 가장 마지막 단계인 성취도 e가 성취율 40% 이상을 의미합니다. 즉 과목별로 성취도 e에 도달했을 때 비로서 학점 이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학점당 16시간의 수업을 진행하므로 4점짜리 공통 과목은 수업을 보통 64시간 실시합니다. 앞서 학점을 이수하려면 출석률은 수업 횟수에 3분의 2이상을 출석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4점짜리 과목의 경우 총 64시간 수업 횟수에 3분의 2인 43시간 이상을 출석하고 40% 이상 성취를 얻을 경우 학점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학점을 어떻게 해야 이수할 수 있는지는 이해하셨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 못하는데 학점을 얻지 못해 졸업하지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을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고교 학점제는 우리 아이들을 졸업시키기 어렵게 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아닙니다. 최소 성취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적이기 때문에 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추가적인 학습 기회를 꾸준히 제공해서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즉 학업 성취이자 이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에게는 학교에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운영해서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최소 성취 수준 보장

그러면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학교에서 학생이 최소 성취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추가 지도를 의미합니다. 앞서 고교 학점제가 도입되면서 학생들이 최소 성취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교의 책무성이 커졌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를 위해 학교에서 실시하는 노력 중 하나가 바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에 제도라도 갑자기 적용되면 제대로 운영되지 않겠죠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는 올해 갑자기 적용된 것이 아닙니다. 2023년도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3년 차를 맞이하는만큼 학교에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가 제대로 운영될 것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리는 없으실 겁니다.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는 학생들이 40% 미만의 성취율 보여 학점 이수 기준에 미도달 하는 상황을 예방하는 교육으로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기말 평가 이후 실제로 학점 이수 기준에 미도달한 학생에게는 보충

지도를 통해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러면 보충 지도를 받는 학생들은 얼마나 수업을 들어야 학점을 이수할 수 있을까요 한 학점당 다섯 시간의 보충 지도가 실시되는데 반드시 모두 참석해야 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보충지도 실시 회수에 2/3 이상을 참여하면 됩니다. 좀더 쉽게 예를들어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전에 한학 점당 다섯 시간의 보충 지도가 실시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4점짜리 공통과목의 학점 이수 기준에 미달한 학생은 총 20시간에 보충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총 20시간의 보충지도 실시 횟수 중 2/3 이상을 참여하면 학점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시간 중분 2/3에 해당되는 14회 이상 보충 지도에 참여하면 학점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충 지도를 통해 학점을 이수한 학생들은 학교 생활기록부에 어떻게 기록될까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성취도 안에 이를 기재하고 보충지도 여부는 별도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출석을 부족으로 학점 이수 조건에 미도달 학생에게는 추가 학습이 제공되는데요. 이때 추가 학습을 이수하면 학교 생활 기록부에 어떻게 기록되는지 안내드리겠습니다. 문학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이 성취도 B를 받았으나 출석률이 부족해서 학점 이수 기준에 미달한 뒤 추가 학습을 이수하게 되면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성취도란에 학생이 성취한 성취도에 B가 입력되고 비교란에는 출석을 미달로 인한 추가 학습 이수가 기록됩니다. 따라서 학부인께서는 자녀가 본인이 수강하는 과목의 수업에 책임감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일부 학부인께서는 자녀가 만약 보충 지도를 받는다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충 지도는 대면 수업 방식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선생님이 안내한 온라인 콘텐츠를 수강하거나 숙제를 하는 것도 인정이 됩니다. 또한 학습 멘토링을 받아도 보충 지도를 받는 것으로 인정되어 학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과목별 특성과 학생별 특성을 고려해서 보충 지도를 유연하게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이 학점을 이수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학부모님께서 학교를 믿고 자녀가 책임감 있게 학습에 참여하도록지도 주시면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의 운영

신학기 준비 기간인 2월에는 학교별로 최소 성취 수준 보장지도 운영 계획을 수립합니다. 1학기 초 아닌 3월에서 4월 초에는 진단평가 기초학력 진단 검사 교과 선생님과 단인 선생님의 추천 등을 통해 학업 성취율 부족해서 학점 이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생을 선정합니다. 1학기에 7월 초까지는 예방지도 학생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방과후 지도 보충 과제 부여 학습 멘토링 등 예방 지도를 실시합니다. 또한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도 예방 지도와 연계해 운영될 수 있으며 예방 지도에 참여한 시간 중 일부는 보충 지도로도 인정됩니다. 1학기 후반인 7월 중순에서 8월에는 학기말 평가 결과를 토대로 과목별로 실제로 학점 이수 기준에 미도달 학생을 확정하고 해당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후 또는 방학 시기에 보충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2학기에도 1학기과 마찬가지로 과목별로 학점 이수 미도달 예상 학생 선정 예방지도 보충지도 등을 실시합니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교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학생과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용 교수 학습 자료와 학생용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하고 교원 연수 과정을 개설해서 학교의 최소 성취 수준 보장지도 운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도 공교육을 믿고 성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핵심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전체 수업 횟수에 3분의 2이상 출석을 하고 그리고 학생이 40% 이상의 성적을 받으면 학점을 이수하게 되는 겁니다. 혹시라도 40% 이상을 받지 못하더라도 학교에서는 예방지도 그리고 보충 지도를 통해서 학생이 꼭 수업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는 점도 학부모님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학생평가

첫 번째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석차 등급제가 석차 등급제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동안 내신 등급제는 너무 촘촘히 변해서 과도한 성적 경쟁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학생간의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서 내신 등급제로 개선하였고 살펴보면 석차 등급제에서 1등급이 4% 2등급은 7% 여서 합하면 총 11% 있습니다. 5등급 제는 1등급이 10%아서 기존의 1등급과 2등급을 합한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됩니다.

어떤 과목에 수강한 학생이 100명이라고 가정한다면 기존 석차 등급제에서 1등급은 1등에서 4등까지 해당되고요 2등급은 이제 11% 누적 비율이 11% 아지니 5등에 11등지 해당되었습니다. 반면에 세로 도입되는 5등급제 있는 1등급은 10% 지니까 1등에서 10등까지 2등급은 누적 비율이 34% 아지 내려가니까요. 11등부터 34등까지가 해당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큰 변화는 대부분의 과목 결과가 절대평가 성취도 5단계 A B C D 2과 상대평가 석차등급 1 2 3 4 5등급이 함께 대학에 제공되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다만 과목별 특성에 따라서 일부 과목은 상대평가를 적용하지 않거나 3단계 성취도 a b c 산출하기도 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서 이어지는 내용에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과목 평가 결과가 변화된 것을 이전 년도와 비교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고3의 경우는 자 표를 한번 잘 보세요. 보통 교과 써 있는데 원점수 석차등급 등급이라 적혀 있고 과목 평균 수강자수 표준 편차 요렇게 제공되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일반 선택 과목과 공통 과목이 이 안에 들어 있는 건데 석차 등급제를 산출하고 대입에 제공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성취도는 이제 대입에 제공되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그러면 성취도 5단계는 산출하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산출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 기업에도 기재가 됐지만 대입에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진로 선택 과목의 경우는 성취도 3단계만 산출하고 대입에서 제공되었는데요. 그렇게 다르다 보니까 고2, 고3 선택 과목을 선택할 때 석차 9등급의 대입에 제공되는 일반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게 좋을지 성취도 3단계만 대입에 제공하는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게 좋을지 유불리를 따지면서 과목을 선택하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이번 내신 평가 개편으로 석차 등급 등급과 성취도 5단계가 동시에 대학에 제공되기 때문에 성적 방식의 차이로 오는 감목 선택 유불리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번 내신평가 방식 개편으로 상대평가 석차 5등급을 산출하는 과목도 그간 9등급을 산출했다 과목은 저희가 제공하지 않았지만 어 5등급을 산출한 과목도 성취도와 함께 또 성취도 분포 비율도 대입에 제공된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변화된 거 왜 그랬냐면 상대평가 이제 구등급 산출된 과목도 성취도 대비 제공되지 않았고 앞으로는 석차 5등급과 함께 성취도 다 제공되는만큼 이제 석차 등급뿐만 아니라 과목 성취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 제가 성취도 성취도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 의미가 무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학부모님들 과거에 학교 다니실 때 수우미양가라 절대 평가를 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요즘은 학교에서 수미 양과 대신에 a b c d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신 평가 제도를 성취평가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취 평가제란 이제 과거에 일정 점수를 도달하면 수우미양가라 부여했던 절대 평가 방식을 보완해서 개선한 제도라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과거 절대 평가와 달라진 점은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학생들이 배워야 하는

내용을 미리 정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성취 기준이라고 하는데요. 성취 기준에 얼마나 도달 있는지에 따라서 성취도 **a b c d e**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 수능

먼저 내신 중심을 제가 말씀드리지만 수능도 뺄 수가 없겠죠. 수능 출제 과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수능 선택 과목을 전면 폐지하고 통합형으로 어떤 학과에 희망하는지 관계없이 모든 학생은 통합 사회 통합 과학, 그 다음 국어 같으면 화법과 언어 독서 장문 문학을 동일하게 응시하게 됩니다.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기술과정 정보 제2외국어 한문 이에 대부분에 해당되는 과목은 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5단계 성취도와 함께 석차 5등급이 같이 산출해서 대학에 제공되게 됩니다.

다만 사회과학의 융합 선택 아홉 개 과목이 있는데요. 여행지리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 세계 융합과 탐구 같은 융합적 성격이 있는 이 과목은 융합적 사고력을 하명하는 과목 성격을 고려해서 상대평가는 제외하고 5단계 성취도 산출하게 됩니다.

체육 예술 과학 탐구 실험은 실습 실업 과목이나 성격을 고려해서 3단계 성취도 산출합니다. 이 교양 과목은 워진로와 직업 논술 이런 과목들은 교양적인 성격을 고려해서 이수 여부인 패스만 이렇게 산출된다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 성취도

이 성취도 **a b c d e**가 구분하기 되는지 궁금하시죠. 중학교에서는 90점 이상이면 **a** 80점 이상이면 **B** 70점 이상이면 **C** 이제 60점 이상이면 **D** 그 이하 **E**로 성적을 받았던 걸 기억하시죠. 고등학교는 중학교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과목에 따라서 성취도 구분이 좀 다를 수 있는데요. 물론 이제 중학교 때와 같이 **a 90 B 80 C 70** 이렇게 구분하기 있고요. 이제 과목에 따라서는 선생님이 좀 시험에 난이도로 어렵게 출제했다 그러면 성취도를 구분하는 기본 기준점이 **a 85 B 75 C 65** 이렇게 낮아질 수도 있는 점.

과목별로 성취 도구 구분하기 이렇게 다르다니 벌써 좀 걱정이 되시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시험 문제 출제가 완료되면 지필 평가를 보기 전에 이 과목별 성취도별이 기준 점수 미리 알려주고 있으니 미리 걱정 안 하셔도 될 거 같고요.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성취도 **a**를 받는 점수가 어떤 과목은 85점 어떤 과목은 80점으로 두 과목이 있다 그러면 **a** 분하는 점수가 85점이 과목 보다 80점이 과목이 좀 더 난이도가 높아서 시험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내신 평가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 학교 생활 기록

내신 평가 성적 산출 내용을 포함해서 학교 생활의 전반의 기록을 담은 것을 바로 학교 생활 기록부 줄여서 학생부 하는데요. 이 학생부의 변화된 내용 위주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억하실 점은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에도 학교 생활기록부 기록 항목 뭐 출결 사이라지만 및 종합 의견 같은 항목이나 항목표 최대 글자수는 변화없이 동일하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고교학점제 전면 시작되면서 학기 단위로 과목이 운영됨에 따라서 일부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12학기에 걸쳐서 학년별로 운영하는 과목의 경우는 석차등급 성취도 같은 성적 정보는 학기 단위로 산출되는데 과목별 특기 사항이라 그래서 주로 세탁이라고 많이 불리는 거죠. 이거는 이제 학년 단위로 한꺼번에 작성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성적과 함께

과목로빈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학년별로 운영되는 과목도 있었고 이렇게 섞여 있었는데요 .이제는 모든 과목이 학기별로 운영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고등학교 1학년 공통 영어가 학년 단위로 운영되었지만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공통영어 1 공통영어 2 이렇게 과목이 분리해서 학기 단위로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성적이 나오고 각각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 최대 500 자씩 기록 하게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내신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완화 되니까 내신 성적이 변별력이 약화될 것이며 비교과 영역이 중요해질 거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2019년 11월에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저희가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시면 비교과 영역 중에 어 소논문 자율동아리 개인봉사 활동 실적 뭐 수상 경력 독서 활동 등등 대입에 미반영 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2024년도 대입부터 이렇게 영향력이 크게 줄어 이 부분은 올해 고일 학생부터 적용되는 28학점 부분입니다. 따라서 내신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조정되었다고 비교과의 영향력이 높아졌다는 주장은 사시가 다릅니다.

## QNA

### Q. 고교학점제를 하면 무엇이 좋은가요?

주어진 대로 설명 공부하는게 아니라 자신의 어떤 진로라는 적성에 맞는 과목들을 직접 선택해서 수업을 듣기 때문에 공부에 대한 어떤 흥미 학습 동기 이런 것들이 높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장점이 있겠고요.

학생이 직접 과목을 선택해서 듣기 때문에 책임감 있게 이것을 이수해 갈 수 있는 경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도 있겠습니다.

소속 학교가 아닌 곳에서도 다양한 과목의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점, 과목 선택에 대한 상담과 지도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다는 점, 학교 내에도 학생 어떤 맞춤형의 어 공간들이 잘 구성되어 있다는 점

고등학교 생활을 좀 더 다채롭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제도.

학생이 직접 자신에게 맞는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고 또 다양하게 경험을 쌓을 수가 있다.

### Q. 고교학점제가 계속 운영이 되어 왔는데 올해 전면적으로 시행되면서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그 학점이 졸업과 직접 연계된다는 점이 올해 고기 학점제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고등학교 신입생부터는 3년간 192 학점 이상의 학점도 함께 취득해야지 졸업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교학점제는 한 8년여간에 준비 기간이 그동안 있었습니다.예를 든다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3년도 터 학점제 일부 요소들을 도입해서 운영에 왔기 때문에 어 과목을 선택해서 학점을 취득하고 이렇게 졸업하는 이와 같은 기본적인 요소들이 이미 학교 현장에 어 정착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Q. 졸업과 연계된다고 하니까 학부모님들께서 192점 못 채우면 졸업을 못 하나요?

일단 고등학교 3년 동안 최소 192점 취득해야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에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통해 모든 학생이 192학점을 얻어서 졸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학기초에는 예방 지도를 통해 학업 성취율



부족해서 학점 이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상황을 예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기말 평가 이후 실제로 학점 이수 기준에 미도달 학생에게는 보충 지도를 통해서 해당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에 학부모님들은 학교를 믿고 자녀가 그 본인이 수강하는 과목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학업에 임하도록 지도해 주시면 모든 학생들이 학점을 취득해서 졸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졸업을 위해서 192점 취득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학생들이 좀 더 책임감 있게 학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

**Q. 이전과 다르게 학점 이수 기준이 도입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든 학생에 대한 최소한의 성취 수준을 보장하는 책임 교육을 통해 평등한 출발선을 보장하는 학교 교육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기존에는 출석 일수 기준 충족 여부만으로 결정되던 졸업 요건을 학점 취득 기준으로 전환을 해서 학생의 최소한의 성취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서 학점 이수 기준이 도입되었습니다. 학습 결손 그리고 결손 누적 예방에 대해서 국가와 교육청 학교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등 학습자의 성장을 중심에 두고 학생들이 과목 이수 기준에 도달해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책임 교육을 강화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Q. 과목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이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입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학교가 안내를 잘 해 주고 있나요? 어떻게 안내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학교에서는 교육과정 설명회 그리고 교육과정 박람회 그리고 뭐 수시로 상담 등을 통해서 과목 안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는 어벤져스 팀이 계신데요 바로 교육과정 이수 지도팀 입니다. 과목 선택 상담 학습 코칭 등 학생 여러분을 다방면으로네 지원합니다.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함께 학교 사이트에 진로 학업 설계 지원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과목에 대한 안내 자료가 탑재되어 있고 그리고 또 전국의 중상 고등학생 모두 진로 진학 상담 학습 코칭 진로 학업 컨설팅을 무료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진로 학업 설계서 한번 모두 작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Q. 교육과정 이수 지도팀 말씀해 주셨는데 학교에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으세요?**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지도하시는 담임 선생님 그리고 교과지도 선생님 그리고 뭐 학년부장 선생님 그리고 교육 과정을 담당하시는 선생님 여러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의 교육 과정을 위해서 고민하시고 또 상담하시고 하는 그런 팀이 되겠습니다.

**Q. 과목 선택 전에 자신의 진로를 결정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적성과 관심 분야를 탐색하고이를 바탕으로 학교의 지도하의 과목을 선택해 갈 수 있습니다. 자 학생들은 1학년 때 공통 과목을 수강하고 그러면서 다양한 분야를 탐색할 수 있고요. 자신의 진로와 적성 그리고 이런 걸 파악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진로와 학업을 설계해 나가는 겁니다. 이후에 자신이 좋아하는 과목 선택한 과목을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과정에서 깊이 있는 학습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서 진로를 구체화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Q. 학생이 원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학교에서 다 모두 다 개설을 해주나요?**

학교는 그 학생의 원하는 그 과목들을 최대한 개설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 하지만 학교에 따라서는 어 희망하는 과목의 신청 학생수가 너무 소수이거나 그다음에 학생 어 학생을 가르치실 선생님이 안 계신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동 교육 과정 그다음에 온라인 학교 그다음에 학교 밖 교육 등을 통해서 과목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공동교육 과정이라고 하면 인근 학교가 서로 협력해서 과목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학교에서 어 수업을 듣는게 아니라 과목이 개설된 인근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것을 말합니다.

온라인 학교라고 있습니다. 그 온라인 학교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반적인 학교와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소속 학생이 없다는 점인데요. 대신에 수업은 온라인 수업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이 없지만 선생님들만 이렇게 구성된 아주 좀 독특한 학교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학생과 선생님이 화면을 통해서 온라인 수업이 이루어진다는 것 외에는 일반적인 학교에서의 대면 수업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학급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 내에는 대학 공공 기관 지역 사회 기관 이런 기관들이 존재하는데요. 일정한 조건을 갖춘 지역 사회 기관 중에서 교육청으로부터 승인받은 기관을 학교 교육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은 학교 교육 기관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과목을 수강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학교 교육 같은 경우에는 수강한 모든 과목들이 학교에서 이수한 그런 과목들과 동일하게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공동교육 과정 온라인 학교 수업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학교에서 개설된 과목의 어떤 안내와 신청은 시도 교육청별로 는 고교학점제 지원 센터 누리집 그리고 공동 교육과정 온라인 학교 누리집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 교육청별로 공동 교육 과정과 온라인 학교에 개설된 과목의 모집요강 그다음에 신청 기간 유의사항 이런 것들이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공동교육 과정 온라인 학교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학생들은 원하는 과목을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이 두 가지 공동교육 과정 온라인 학교를 수강하게 되면 과목의 성적은 이게 또 어떻게 산출이 되는지요?**

공동교육 과정이나 이제 온라인 학교 운영 과목은 학교 내 개설 과목과 달리 이제 여러 학교 학생들이 공동으로 이제 수강하는 특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평가를 산출하는 과목이라도 상대평가를 산출하지 않고 즉 아까 등급 1 2 3 4 5등급을 산출하지 않고 성취도 a b c d 또는 이제 과목에 따라서 제가 a b c 산출한다 했는데 그렇게 산출 내게 되는 거고요 학교 밖 교육도 제가 좀 설명드리면 이제 대학 등의 이제 지역사의 강사분들이 평가하는 특성을 고려해서 성적은 산출하지 않고요. 과목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이수 학점과 더불어서 객관적인 학습 내용은 기록하게 됩니다.

**Q. 아까 석차 등급 그리고 성취도 얘기해 주셨는데요. 석차 1등급이 성취도 a 뭐 2등급이 B 이렇게 되는 건가요?**

석차 등급과 이제 성취도는 성적을 산출하는 방식이 이제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석차 등급은 이제 상대 평가로서 상대적인 위치가 나타내는 거고요. 이제 성취도 같은 경우는 이 성취 기준에 도달하는 정도에 따라서 성취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1등급이 성취도 a 이렇게 연결되거나 성취도 B 이제 2등급 이렇게 대응되는게 아니고 애를 한번 좀 들어보면 성취도 a 받은 학생이 이제 10% 넘으면 a 받았어도 이제 2등급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a 받는 학생이 이제 10% 안 된다면 B 받은 학생 중에 일부는 1등급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Q. 융합 선택 사회과학 교과는 상대평가 성적을 같이 안 보는 이유가 뭐예요?**

융합 선택 과목은 이제 교과내 연계 교과간 연계해서 이제 융합적으로 이제 하는 그 과목들 인대요. 이제 사회하고 과학이 그 성격을 좀 잘 드러내는 교과 생각이 되고 어 저희가 대입 개편 때 국가교육 위원회에서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심의 의결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어 그걸 존중해서 좀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수능 과목도

이번에 통합 사의 통합 과학을 봐서 융합적인 학습을 좀 더 유도하는만큼 이제 상대 평가 없이 절대 평가로 학생들이 보다 더 융합적인 사고력을 함양하도록 절대 평가 방식을 그렇게 정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Q. 고등학교 학생들이 그 반을 찾아가면서 수업을 듣나요? 어떻게 수업을 듣게 될까요?**

그 1학년은 공통과목을 이수하게 되죠. 공통 과목이라고 하면 그 모든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이수하게 되는 그런 과목들이고요. 같은 반 친구들과끼리 수업을 같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2학년으로 가게 되면 선택 과목들을 이수해 가기 때문에 선택 과목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본인의 어떤 진로라는 적성이라는 이런 거에 따라서 서로 다른 과목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서로 다른 과목들을이라고 하지만 또 같은 과목을 듣는 친구들이 또 생기기 때문에 그와 같이 같은 과목을 듣는 친구들과끼리 같은 반을 편성을 해서 이동 수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Q. 공동 교육 과정과 온라인 학교 수업은 수강 제한이 없나요?**

공동교육 과정과 그 온라인 학교 개설 과목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1학년 기준으로 한학기에 두 과목 이내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수강 가능하고요.

소규모 학교가 있는 어떤 농산 노촌 지역이라는 이런 지역의 어떤 특수성을 가진 그런 지역에서는 시도 교육청 판단하에 세 과목 이상 수강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한학기 두 과목이라고 일단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Q. 예방지도 학생은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예방지도 대상에 선정되면 반드시 예방지도 수강해야 되나요?**

예방지도 학생은 학기 초에 기초 학력 진단 검사 진단 평가 교과 선생님 하고 담임 선생님 추천 등을 활용해서 최소 성취 수준 미도달 학점을 이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학생을 선정합니다. 그 후에 예방지도 대상 학생 중에 희망자에 한해서 예방 지도가 진행됩니다. 예방 지도는 방과후 지도, 보충 과제 부여 그다음에 학습 흥미와 동기를 형성하는 프로그램 상담과 같은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 학습 컨설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예방 지도는 학생이 최소한의 성취 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추가 학습 프로그램인만큼 자녀가 학점을 이수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예방 지도에 참여한 시간 중 일부는 보충 지도로도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학부모님께서도 자녀가 만약 예방지도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자녀가 예방 지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 성적이 부족한 자녀가 보충지도 대상이 되어서 또래 학생들 사이에 놀림의 대상이 될까 봐 걱정입니다. 보충지도 외에는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보충 지도는 제가 앞선 설명해 말씀드린 것처럼 방과후나 방학 중에 대면 지도뿐만 아니라 학기 중에 예방 지도와 연계 온라인 콘텐츠 제공 보충 과제 부여 학습 멘토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부모님께서 염려하시지 않도록 학교에서 과목별 특성 학생별 특성을 고려해서 보충 지도를 유연하게 운영함으로써 자녀의 학점 이수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Q. 여러 과목을 동시에 미이수한 학생은 보충지도 참가에 부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보충 지도를 정상적으로 수강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보충 지도는 어쨌든 방과후, 방학 중에 대면 지도뿐만 아니라 학기 중의 예방 지도라 온라인 콘텐츠 보충 과제 학습 멘토링 등 다양하게 좀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여러 과목의 이수 기준을 미도달한 학생들의 상황을 고려해서 보충 지도를 운영할 것이고 이를 통해서 여러 과목의 보충 지도를 수강하는 학생들도 큰 부담 없이 과목을 이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서 학생들도 최소한의 성취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스스로 선택한 과목 수업에 책임감 있게 참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Q.** 학생 운동 선수는 진로 문제로 학업에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운동 선수에게 학점 이수 관련해서 예외적으로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부는 학교에서 교육 과정과 학생 상황을 고려해서 학점 이수 인정 기준과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학교 별로 학업 성적 관리위해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 운동 선수의 경우 학점 이수 기준과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이수 기준 자체는 동일하게 적용하나 학교에서 최소 성취 수준 보장지도 운영 방법에 있어서 예방지도 연계 비율 정서지원 프로그램 운영 비율 대면지도 포함 여부 등을 별도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특수교육 대상 학생도 학교에서 장애 특성과 장애 정도를 반영해서 학점 이수인정 기준과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별도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학생 운동 선수와 특수 교육 대상 학생 등 특수한 환경에 있는 학생의 학점 이수 인정 기준 및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는 학교별로 마련되어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학교에 문의하셔서 안내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 수강 중인 과목 변경할 수 있나요?

학교는 그 학생의 과목 선택을 위해서 학생이 과목을 탐색하고 심사 숙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 선택은 일단 신중해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일단 과목을 선택했다면 책임감 있게 이수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그 학생에 따라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학교 규정에 따라 마련되어 있는 과목 변경시기 절차 등을 토대로 해서 조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 어 문의를 하셔서 안내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 학생이 중간에 진로가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로가 변경되었을 때 혹시나 그동안 내가 들어왔던 과목들이 있는데 이 과목들에 의미가 없어지는지 혹시 또 이걸로 대입해서 불리하지는 않나요?

대학에서의 선발은 대학별 인재상 전형의 취직 등에 따라서 각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적용하는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입학 사정 과정에서 전공 적합도 평가할 때 학생이 수강한 과목만 가지고 평가하지는 않아요. 더욱이 입학 사정관들은 학생의 진로 희망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의 진로 희망 변화로 학년별 선택과목 분야가 바뀌었다고 해서 대입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Q.** 학생들 시간표에 대학처럼 이렇게 공강이 생긴다던데 학생들은 어떻게 시간을 보내게 되나요? 이 시간에 혹시 학교 밖으로 나갈 수도 있나요?

공강 시간은 그 학교 교육과정에 따라가지 일과시간 중에 수업이 없는 그런 시간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 학생이 그래서 자유롭게 학교 밖으로 이렇게 외출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 공강 시간은 학생별 그 과목 선택 과정 상황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학생은 공강 시간이 있지만 또 어떤 학생은 공강 시간이 없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공강 시간이 있는 학생이라면 공강 시간에는 자율학습을 하거나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받거나 온라인 학교 수업 수강도 가능합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학교별 워 프로그램이 이렇게 운영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어 공강 시간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공강 시간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학생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Q. 내신이 석차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는 부분 그래서 혹시 자사고와 특목고가 유리하거나 뭐 다른 다른 학교들이 분리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요?**

내신 석차 9등급에서 이제 5등급으로 완화되었다고해서 이제 변별력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25학번 대학에 제공하고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은 성취도 3단계만 또 제공했었습니다. 이렇게 제공 방식이 달랐는데요. 사실 이제 이번 개편으로 이제 석차 등보 완화됐다 하더라도 고등학교 전학년에 걸쳐 대부분의 과목이 성취도 5단계 하고 석차 5등급이 함께 제공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내신에 대한 변별력은 확보할 수 있고, 이 상황은 이제 고등학교 유형에 상관없이 자사고나 특목고도 다 적용되기 때문에 특정 고교의 이제 유불리 판단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석차 5등급제로 이제 1등급 비율이 4에서 10% 늘어나서 과목의 수강자 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나 소인수 과목에도 이제 석차 등급에 취득하는 어려움은 상당 부분 해소될 거로 생각합니다.

**Q. 평가 운영 계획 워 성적표 이런 거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매학기 워 평가 운영 계획 워 지필 평가 시라지 수행평가 워 어떤 것들 보는지 학교 지나 이제 가정 통신을 통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보다 자세한 평가 운영 계획이 좀 궁금하시다 싶으면 4월이나 9월에 이제 학교 정보 공식 그 누리집이 있습니다. 이제 학교 알리미를 좀 쳐서 해당 학교 명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또 자녀의 이제 학교 생활 기록보다 또 성적표도 어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에 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해당 학년에 아 제가 말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과목별 세부능력 특기상이라든지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 창의적 체험 활동의 특기상 같은 서수형 항목 같은 경우는 당해 학 년도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학년도에 가서 서술형 항목을 포함한 학교 생활 기록부를 학교 행정실의 민원으로 요청하거나 정부 24 홈페이지 그 누리집에도 열람과 다운로드가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Q. 보충지도 14시간 하면 학점 준다고 하는데 출석 체크 어떻게 하나요?**

보충지도 담당은 그 해당 과목에 선생님께서 어 수업 계획을 수립해서 보충 지도를 운영하십니다. 따라서 보충 지도에 그 참여한 학생들 출석 체크도 그 선생님들께서 하십니다. 보충지도 3분 2의 이상을 참여하게 되면 예를 들어 20 시간짜리라고 하면 14시간 이상 참여하게 되면 학교의 학업 성적 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이수가 처리가 되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Q. 보충지도 때문에 방학 중에도 학교를 가야 하나요?**

보충 지도는 대면으로 수업받는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온라인 콘텐츠를 수강을 하거나 숙제를 하거나 워 그 멘토링을 받는 그런 것들이 다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의 어떤 상황이라든가 그다음 교과 과목별 어떤 특성을 고려해서 보충 지도를 어떻게 유연하게 조금 운영해서 자녀 자녀가 어쨌든 학점을 이수하는데 큰 지장 없도록 지원할 겁니다.

앞서 제가 그 이전에 보충지도 전에 예방 지도를 한다고 했는데요. 예방지도 대상으로 만약에 선정되서 예방지도 참여하면 예방 지도의 중에 일부 시간이 보충지도로도 인정이 됩니다.

**Q. 우리 아이의 학생부에 관련해서 선생님께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학교생활 기록부는 이제 법정 장부입니다. 이제 선생님들이 관찰하고 평가한 것을 그대로 이제 기록하게 되어 있는 사실은 좀 의무 사항이 있는 그 문서고 그래서 이제 혹시나 이런 것을 써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유의해 주시길 바라고 청탁 금지법에 이제 부정 청탁에 될 수도 있으니까 유의해 주시고 선생님을 좀 믿고 선생님들이 저희 잘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연수도 많이 하고 기재에 도움이 되는 자료도 많이 개발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안심하고 좀 공교육에 맡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Q. 이제 중학생이 고등학교 입학 전에 미리 준비할게 있나요?**

학생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많이 바쁘시겠지만 자신의 소질과 적성이 무엇인지 어떤 분야의 관심이 있고 어떤 진로를 정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탐색해 보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커리어넷 워크넷 꿈길 등과 같은 진로 탐색을 위한 사이트나 각 시도별 진로진학 지원 센터를 이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부에서도 학생의 진로에 맞는 과목 선택을 위해서 함께 학교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 상담 코너를 마련하였습니다. 스터디 카페 이 플래너 들어가시면 컨설팅 신청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진로 학업 소기 우수사례 오른쪽에 보이시죠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립니다. 진로 학업 설계 바로가기 QR 코드도 있으니까 한번 방문해 보시길 바라구요.

중학교 학부모서비스지도 팀이 있고 그리고 혹시라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함께 학교 사이트처럼 국가가 나머지는 책임져 드립니다. 학교를 믿고 학생들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Q. 고교학점제에 대한 정보는 우리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에듀의 누리집이 있고요 그리고 시도 교육청 고교학점제 관련 또 누리집이 있습니다. 어 특히 시도 교육청 고교학점제 관련 누리집에는 그 시도 교육청 그고 고교학점제 관련된 정보와 진로 학업 설계 컨설팅 또 신청서 방법 뭐 이런 것들이 또 안내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시도 교육청 고약 점제 안내 센터 운영에 관한 그런 정보도 함께 포함되어 있으니까 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점제 누리집 전국 시도별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누리집 정보도 저희가 추후에 함께 학교 사이트의 질문 정리해서 올려 드리면서 함께 또 올려 드리겠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시도별로 있는 누리집을 통해서 보다 더 자세한 정보를 안내받으시면 좋겠습니다.